박태원 교수의 13

불교로 보는 인생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

진리 추구하려거든 마음열고 집착말라

태어난 후 한번도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는 갑돌이. 앞산에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산신령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은 온통 그 산신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그는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였고, 산신령을 섬기는 마을의 전통 역시 확신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 지식과 신념은 갑돌이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탱하는 확고한 토대였다. 그 토대 위에서 그의 마음과 정서는 질서 잡혔고 또 안정되었다. 산신령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기에, 신념 공동체의 강한 유대로 맺어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탄탄하였다.

어느 날 여러 곳을 여행한 사람으로부터 산신령에 대한 그의 지식과 신념을 뿌리 채 흔들어 버리는 말을 듣는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지배하는 유일한 산신령이란 것은 없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소문과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미신일 뿐이야! 마을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바보 취급을 받지!" - 이제 갑돌이는 혼란스럽다. 이제까지 삶의 질서와 안정을 제공했던 기반이 흔들리니 어찌해야 하나. 길은 두 가지다. 과거의 신념을 흔드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의면해 버리는 길이 있다. 이 길을 택하면, 과거의 지식과 신념을 흔드는 자를 강하게 비난해야 한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말 대로라면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 라면서 그의 말에 강하게 도리질친다. 현상 유지·변화 거부·보수의 길,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길이다.

또 하나의 길이 있다. 기존의 안정이 깨지는 혼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보다 깊고 온전한 진실을 찾아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미혹에 입각한 안정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향한 불안과 고통을 용감하게 택하는 경우이다. 진리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부추기는 길, 변화에 과감한 길, 진보 노선이다. 이 길을 택하면 상당기간 괴롭다.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혼란이 괴롭고,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질서 위에 형성된 관계들이 흔들리니 괴롭다. 깊고 넓은 온전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와 안정이 자리잡게 될 때까지는.

고등학교 시절 필독서로 유행하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다. 감동으로 되새기던 그 유명한 구절, "알에서 깨어나 새가 되려면 알이 깨어지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해!"였던가. 진리를 향한 여정은 그렇게 괴롭기 마련이다. 무수한 알깨기가 거듭되어야 하는 길이 구도의 여정이다.

"거듭 들어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전통이 그러하다고 해서, 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통용되는 일반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그럴듯한 추리에 의한 것이라 해서, 곰곰이 궁리해 낸 견해이기에 그것에 대해 갖게 되는 편견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그럴듯한 능력 때문에, '이 분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칼라마경)"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탐구의 자세이다. 우리의 앎과 신념은 어디에서 연원하고 있는가? 혹 반복학습이나 전통, 소문, 성전, 통념, 스승 등의 권위에 압도되어 형성된 것은 아닌가? 전통이 진실일 수도 있다. 성전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이 진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권위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럴듯한 권위들에 집착하여 닫혀 버린 마음으로는 진리를 사랑할 수 없다. 무집착의 용기로 활짝 열려있는 마음이라야 진리를 담아 낸다.

방송 중인 '도올의 논어 이야기'가 화제다.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도올 선생의 강의는 언제나 대중들에게 학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강의 내용 중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견해가 해당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받으면서 시중이 시끄럽다. 오고 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부처님이 권하는 진리 탐구의 자세를 떠올리게 된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바른자세-운율법 '마음 안정'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③-어떻게 하나

◇ 참선에 가까운 자세를 취해야 올바른 염불수행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장궤합장을 한 채로 염불하고 있는 모습.

머리와 척추 일직선 심장박동에 맞춰

초심자 목탁사용 무난 법당 밖에서도 가능

염불수행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그렇다고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부처님께서 설한 주요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만큼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옛 조사 스님들이 염불할 때 조금이라도 '나'라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올바른 염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다.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염불할 때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자세를 취한다.

청견 스님(양평 법왕정사 주지)은 가장 효과적인 염불수행 자세로 장궤를 추천했다. 이 자세는 호궤 합장한 자세와 같으나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펴야 하고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야 한다. 이는 단전호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세로 오랜 염불수행에도 목이 아프지 않고 혀가 꼬이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스님은 합장하고 심장박동에 맞게 염불해야 올바른 염불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염불을 너무 빠르게 하면 발음이 제대로 안되거나 혀가 꼬일 수 있고, 너무 느리면 잡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합장을 하는 이유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고, 심장박동에 맞게 염불하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목탁을 치거나 염주를 손에 쥐고, 또는 큰 소리로 염불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초심자나 집중이 잘 안되는 사람의 경우 목탁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염불수행의 방법으로 여기거나 오래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능한 염불은 여럿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좋다. 불보살을 관하는 것이 염불이니 만큼 자신의 염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염불수행법을 설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4종 염불이다. 칭명염불(稱名念佛)은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며, 관상염불(觀像念佛)은 부처님의 상호나 탱화 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관상염불(觀想念佛)은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것이며, 실상염불(實相念佛)은 법신관으로 일체법의 자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을 펴낸 정목 스님은 "이 네 가지 염불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칭명염불은 단순히 명호만을 부르며 마음을 집중하는데 이르지만 점차 상호를 상상하며 보다 세밀한 상태로 몰입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스님은 "관상은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관상은 상호의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입으로 명호를 부르되 입으로 한다는 생각을 잊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실상염불은 신업이 청정한 상태에 이르고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불수행은 반드시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길을 걸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공양을 할 때 등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을 번뇌망상과 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염불수행의 자세와 운율법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결국 가장 올바른 염불수행은 참선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에 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국내 연구수준 中·日 비해 미흡

35 선어록의 연구 (3)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선어록언어

국내에서의 선어록 언어 연구는 이웃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분야별로 간략하게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

선어록 번역의 시작은 간경도감(1461년 설치)의 언해본이며, 그 이후로는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의 〈한글대장경〉으로, 그 가운데는 〈조당집(祖堂集)〉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련선서간행회(白蓮禪書刊行會)의 〈선림고경총서(禪林古鏡叢書)〉(1988-1993)인데, 그 중에는 〈임제록(臨濟錄)〉 등 다수의 선어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어록의 체계적 기획·번역·출판이라는 면에서, 국내 선학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상 어록의 판본(版本), 간행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또한 원문과 대역(對譯)하지 않은데다가, 주석(註釋)도 없어 학술적 가치를 다소 떨어뜨리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법장(法藏)이 주해(註解)한 〈조당집주해(祖堂集註解)Ⅰ〉은 〈조당집〉 전 20권 가운데, 우선 1-5권을 번역·주해한 것인데, 한 두 가지 아쉬운 것은 대만에서 간행된 〈불광대장경·선장(佛光大藏經·禪藏)〉을 참고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현대식 표점(標點)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말 현토(懸吐)를 첨부하였으며, 당송(唐宋)의 속어(俗語) 해석의 오류가 적지 않은 점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한 가지만 지적한다.

508쪽 註解 21 '要且 : 요컨대, 결국, 어쨌든'→[수정안] '要且 : 여전히'

師曰 : 在彼中,卽如此,我這裏,作麼生? 對曰 : 要且不違背

(번역)스님이 "그대가 그곳에서는 그러했지만,이곳에서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묻자,"여전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철교, 일지, 신규탁이 편찬한 〈선학사전(禪學辭典)〉(1995)은 일본의 〈선학대사전〉〈선어사전〉 등을 기초로, 9100여 항목을 수록한 것으로, 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선어록의 경우 대상 어록의 판본, 간행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어휘 예문의 우리말 번역이 전혀 없고, 현대식 표점 부호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선어록에 자주 출현하는 어휘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설명의 오류가 있는 등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에 하나의 예만 들어 본다.

〈선학사전〉 735쪽 : 호여(好與) 분명한 .확실히→[수정안] 호여(好與) : 조심하다, 주의하다, 신중히 하다

問雲居: 愛色不? 對曰 不愛. 師曰 : 未在. 好與!(〈조당집 6 洞山和尙〉)

(동산 스님이) 운거에게 묻기를 "자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동산)스님은 "자네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먼, 주의하게!" 라고 말하였다.

이 밖에 선어록 언어를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정경규(석사), 송인성, 박영록, 장호득(이상 박사) 등이다. 이 중 박영록과 송인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편으로 각각 4편 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특히 후자는 1995년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 중국 및 일본 학자들에게 한국의 존재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의 선학 연구는 주로 단독 연구 중심이 있으나, 금년(2000)에 아래의 두 학술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연구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선학회(www.seonstudy.org):3월에 결성되어(회장 현각 스님), 선사상은 물론 문학 사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선과의 관계를 밝히는 논문 발표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선어록연구회(www.sinology.org/séon):4월에 결성되어(회장 종범스님), 매월 정기 윤독회를 갖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월 1회 정기 모임 이외에 매주 1회 윤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최초개발! 초강력 고효율 근적외선 히타 사찰에 인기폭발!

이동용
▶GQ-1000C(1.3kw)
▶GQ-2000C(1.8kw)

사무실,점포용 사찰전용

상,하로 15°
좌로 45°
우로 45°

벽걸이용
▶GQ-1000W(1.3kw)
▶GQ-2000W(1.8kw)

주요제원
용 량 : 220V 1.8KW
220V 1.3KW
램프수명 : 9000시간
열 효 율 : 85~90%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 히타!

근적외선(Near Infra Red NIR)이란?
근적외선 NIR은 첨단과학에 의하여 새로이 발견된 적외선 단파로서 2200이상에서 생성되므로, 직진성이 매우 좋아 사람들이나 정해진 대상에 복사에너지를 통하여 순간 난방을 제공하여 원적외선에 비하여 2배이상 고효율이므로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Gold Quartz Heater는 초현대적 기술과 과학에 의하여 발견된 근적외선(NIR,Near Infra Red)을 이용한 고효율, 고에너지 난방방식으로써 고육가 시대를 맞이하여 석유를 대체할 수있는 초강력 난방시스템입니다. 특히 Gold Quartz Heater는 직사에너지이므로 기존의 석유, 가스 스토브로는 난방이 불가능한 야외, 냉동실, 공장, 넓은 장소등에서 매우 유효하고 경제적입니다.

원적외선 (Long wave Infra Red)이란 ?
원적외선은 적외선의 장파로서 500 이하에서 생성되며 대류에너지에 의한 난방 방식이므로 공기중에 많은 에너지 손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원하는 온도의 난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므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되어 비경제적입니다.

Gold Quartz Heater 이래서 좋습니다.
◆ 사람과 대상물만 난방이 되고 공기는 그대로 이므로 환기가 불필요한 쾌적한 난방효과
◆ 1초이내의 쾌속난방이므로 예열이 필요없습니다.
◆ 전기에너지의 거의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열의 낭비가 없으며 9000시간의 램프수명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 연소의 냄새나 오염이 없으므로 매우 위생적입니다.
◆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카다로그 필요 하신 분은 보내드립니다.

본사 제조원 (주)성화엔터프라이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빌딩 1221호
http://www.goldquartzir.com
e-mail:acedk@netsgo.com

본사 특약점 성동엔지니어링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2
☎ (02)723-2729 / 732-2461 / 011-234-3941

불교용품의 선구업체 가야기획